

미얀마
방정환 기금

어린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

추억의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이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를 모르는 어른은 없을 것이다. 목이 터져라 부르며 얼마나 가슴 벅찼던가! 정말 온 세상이 어린이를 위한 것 같았지. 이 노래는 윤석중 작사, 윤극영 곡으로 1949년에 발표되었다. 가난한 시골의 아이들, 전쟁으로 부모 잃은 아이들도 공중으로 붕 띄워주었지!

최초의 어린이날 노래

처음으로 어린이날 노래가 생긴 때는 1922년 방정환이 어린이날 만들 때 지은 가사이다. 이는 당시 독립군가 곡조에 맞추어 불렀다. 광복이 되자 비로소 어린이들이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린이날〉 노래는 나운영(1946년), 안기영(1947년), 윤극영(1949년)의 곡이 있다. 이외에도 박태준 곡의 〈새나라의 어린이〉, 나운영 곡의 〈어린이 노래〉 등이 널리 불렸다. 이제 이 동요들은 추억의 노래가 되었다. 하지만 어른들 속엔 아직도 그 시절의 어린이가 있지.



미얀마엔 <어린이날>이 없어

어린이날의 기쁨과 설렘! 어린이날이 있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된가!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 들고 부모 손잡고 나들이나 어린이 잔치에 달려간다.

그러나 미얀마엔 어린이날이 없다. 아니, 공식으로 있긴 있다. 2월 13일인데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 생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사람들은 이를 기억할 뿐이다. 휴일도 아니고,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어린이날 노래도 없다.

미얀마 <어린이날 노래>를 만들자!



어린이합창단을 만들 때의 꿈은 미얀마 동요를 미얀마인이 짓게 하기 위함이었다. 창작동요대회를 열어 〈어린이날 노래〉를 짓게 하고 우리 합창단이 불러주자고. 이 꿈이 이루어질까?

작년 12월 한인회 행사 때 합창단 공연을 본 미얀마의 한 인봉제협회장이 합창단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오는 6월 민성숙 지휘자가 미얀마로 달려가신다.

주저앉은 미얀마 경제



주유 대기하는 양곤의 자동차들

호르무즈 봉쇄로 겪는 미얀마의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유류비가 작년 12월보다 배가 넘게 올랐다. 쿠데타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배. 모든 차량은 2부제 운행이고 급유(승용차 15L)도 제한. 물가 폭발로 생산활동은 거의 정지상태.

잡지구입비(권당) 1,150원→1,300원으로

인쇄비며 종이값도 크게 뛰어 어린이잡지 간행이 위기에 몰렸다. 잡지 구입비를 올려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새 기부회원님들, 큰 도움 받습니다.

김순자, 서용진, 윤다원, 윤시원, 윤주원, 정재언.
김원에 남은 기부금액을 올려주셨구요.



5월호 어린이잡지

「방정환기금회원」이
매월 140곳의 학교와
보육원, 마을도서관에
어린이잡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잡지를 선물해주신 귀한 분들

()은 입금 월

- 월 150,000원 : 김윤원(3, 4) / 재단이사, 미국 교민)
- 월 72,000원 : 스텔라(3, 4) / 미국 교민)
- 월 70,000원 : 김윤환(3, 4)
- 월 50,000원 : 백진양(3, 4) 최재화(3, 4)
- 월 30,000원 : 김원경(3, 4) 정재언(4) 조재선(4) 최준수/조정복(3, 4)
- 월 15,000원 : 김부예(3, 4) 예옥석(3, 4) 이정애(3, 4) 조정복(3, 4) 최정복(3, 4)
- 월 12,000원 : 성경희(3, 4)
- 월 10,000원 : 강수연(3, 4) 강계숙(일산/3, 4) 구은희(3, 4) 구자명(3, 4) 권지명(3, 4) 김원애(3, 4) 김인기(3, 4) 김정화(3, 4, 5) 김혜명(3, 4) 민성숙(3, 4) 박봉희(3, 4) 박정희(3, 4) 오승선(3, 4) 이민희(3, 4) 이지영(4) 정영만(3, 4) 정현필(3, 4) 조수연(3, 4) 조정원(1년분) 최영삼(3, 4) 한동훈(3, 4)
- 월 9,000원 : 김유재(3, 4) 심선우(3, 4) 최명숙(3, 4)
- 월 6,000원 : 김순이(3, 4) 배일택/엄지은(3, 4) 윤소암(3, 4) 최정임(3, 4)
- 월 5,000원 : 강명희(4) 김미숙/김민호(3, 4) 김원숙(3, 4) 김원심(3, 4) 김정묘(3, 4) 윤산숙(3, 4) 엄해경(3, 4) 이용현(3, 4) 차중태(3, 4) 한미자/정의정(3, 4)
- 월 3,000원 : 강계숙(3, 4) 김미경(3, 4) 김순자(3, 4) 김연옥(3, 4) 김연수/김인숙(3, 4) 김원희(3, 4) 김종배(3, 4) 김장순/김인숙(3, 4) 김홍원(3, 4) 김홍주(3, 4) 노길용(3, 4) 문해성(3, 4) 배성재(3, 4) 배수현(3, 4) 백정현(3, 4, 5) 서용진(4) 서판임(3, 4) 손미연(3, 4) 삼혜숙(3, 4) 안영실(3, 4) 엄해경(3, 4) 오세현(3, 4) 오순희(3, 4) 윤다원(3, 4) 윤시원(3, 4) 윤주원(4) 윤치영(3, 4) 이미경(3, 4) 이수원(3, 4) 이연희(3, 4) 이유진(3, 4) 이은옥(3, 4) 이풍연(3, 4) 이현숙(3, 4) 임경희(3, 4) 임승규(3, 4) 이현주/최희자(3) 정미선(3, 4) 정성용(3, 4) 정춘희(3, 4) 최광선(3, 4) 한영원(3, 4) 홍복표(3, 4) 홍혜경(3, 4)

미얀마인 회원 월 2,500원 : 틴카잉(3, 4) 난다코코(3, 4) 조린(3, 4)
월 2,000원 : 띠띠체(3, 4) 틴커투(3, 4)

3월 계 : 950,620원

4월 계 : 1,028,880원

※ 잡지 구입비로 월 130만원이 듭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방정환 선생처럼 미얀마의
전기 없는 농촌학교와 보육원에 어린이잡지를 보내주세요.

방정환기금 입금계좌
국민 640601-04-006175
신청전화 : 02)393-0661
(월 3,000원부터)